

투데이

F1경주장 인수 1980억 지방채

이자 합치면 2859억원

(879억원)

이용재 도의원 밝혀... 道 지방채무 1조원 달할 듯

전남도가 F1(포틀러) 국제자동차경주장 인수를 위해 19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부담해야 할 이자만 8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경주장 인수에 들어가는 비용만 28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전남도의 전체 지방채무는 1조원을 넘어설게 된다.

이용재(광양·민주) 전남도의회의원은 28일 제 262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F1 경주장을 인수할 경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라는 조건을 감안하면 이자만 879억원에 달한다"며 이자 부담에 대해 따졌다. 1980억 외에 이자를 더하

면 전남도가 부담해야 할 비용만 2859억원에 이른다는 얘기가.

전남도가 예상하는 올해 말 지방채무 원금만 6245억, 이자 2197억원을 포함하면 총 채무는 8442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2859억원의 채무를 더하면 전체 채무만 1조1300억원을 넘어설게 된다.

이 의원은 "도가 막대한 규모의 지방채 발행과 이자부담은 뒷전인 채 확실하지도 않은 삼포지구 개발이익으로 상환하겠다는 것은 도민들을 현혹하는 것 아니냐"면서 "상환대책을 면밀히 세우지 못하면 앞으로 전남도의 재정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게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와 관련, "이자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경주장 주변 토지개발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상환을 하게 되므로 총 부담액이 실제로 추정대로 이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전남도 채무비율은 11.32%로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지방채가 발행될 경우 경주장을 도 소유 공공체육시설로 등록해 연평균 50억원(15년 기준 750억원)의 교부세 수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한 2859억원에 이르는 지방채 발행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서도 휴대전화로 가짜양주 식별 가능

무선주파수인식 태그 부착

내달부터 6대광역시 확대

통상통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소비자들이 업소에 마련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짜양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 다음달부터 광주시에 확대 시행된다.

국세청은 28일 "가짜양주 및 무자총 주류 등 주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주류판매업소의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작년 11월 서울지역에 도입된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적용 대상 위스키는 원저, 임페리

태그 부착 및 유통의무화 지역을 10월부터 경기도와 제주도를 비롯 6대 광역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소비자들도 RFID 인식 기능을 가진 휴대전화를 위스키 병뚜껑 부분에 붙여진 태그에 대한 실시간으로 국세청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해 제품명, 생산일자, 출고일자 등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적용 대상 위스키는 원저, 임페리

얼, 스킨치블루, 김담, 골든블루 등 5개로 국내 위스키 시장의 80%를 차지한다.

국세청은 고시를 통해 내달 1일부터 경기도, 제주도, 6대 광역시의 소매점, 식당, 유흥업소 등 주류판매점에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해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9월 30일 이전에 구입한 태그 미부착 제품은 먼저 팔도록 했다.

다만 기존 위스키의 재고소진과

진품확인기간의 보급기간을 감안, 내년 4월1일 이전까지 유흥업소에서 RFID 태그가 없는 위스키를 보관, 판매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이를 위반하면 적발될 때마다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내년 10월 1일부터는 수입 위스키를 포함한 모든 위스키 제품, 전국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

"CT연구원 예산 120억 누락"

광주문화도시협·유치위 규탄

광주시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CT연구원) 설립사업 예산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한 국비 120억원이 정부예산안에서 누락된데 대해 관련 단체들이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광주문화도시협회의와 CT연구원 유치위원회는 28일 논평을 내고 "2012년 국비로 요청한 CT연구원 예산 12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서 반영조차 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논평에서 "문화부가 올초 CT연구원 설립타당성 용역을 의뢰하고 정병국 전 장관도 CT연구원을 광주에 두겠다고 했음을 상기하면 이명박 정부의 약속은 립서비스일 뿐"이라며 "지역민을 우롱한 이윤배반적인 행동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

조했다. 또 "예산 누락은 결국 CT연구원 설립없이 문화전당만으로 광주 문화수도조성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지난 2007년 특별법으로 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취지를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어 "광주 국회의원들은 소관 상임위를 떠나 국회에서 CT연구원 설립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며 "광주시와 시의회, 유관기관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모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CT연구원은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홍영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이 대통령, 靑 홍보수석에 최금락새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공석 중인 청와대 홍보수석에 최금락 SBS 방송지원본부장을 사실상 내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이 대통령이 홍보수석에 최 본부장을 사실상 내정했다"며 "다음 달 미국 국민방문을 앞두고 홍보수석 자리를 장기 간 비워둘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동안 현직 언론인을 홍보수석으로 영입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신문사 논설실장급 또는 방송사 보도본부장급 2~3명을 상대로 의사를 타진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여주 출신인 최 본부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MBC 기자를 거쳤으며, 이후 SBS로 옮겨 워싱턴특파원, 국제부장, 경제부장, 정치부장, 보도본부장을 역임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뉴스 브리핑

정부 정전사태 17명 엄중 문책

지난 15일 발생한 정전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전력거래소 임직원 8명, 한전 임직원 5명, 지식경제부 공무원 4명에 대해 면직 등 엄중한 문책 조치를 내렸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총리실

이 전력거래소 열병천 이사장과 운영본부장에 대해서는 면직 결정을 내렸으며, 6명에게는 징계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전에 대해서는 당시 사장을 대행했던 김우겸 부사장을 면직 결정을 내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당정, 공기업 대졸신입 임금 인상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공공기관 대졸 신입직원의 임금을 인상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임금인상을 검토 중인 대상은 지난 2009년 이후부터 올

해까지 공공기관에 입사한 1~3년차 대졸 신입직원으로, 지난 7월분 임금부터 소급 적용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황우석 1번 줄기세포 캐나다 특허 획득

황우석 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 '사람 배아줄기세포(1번 줄기세포)'에 대해 캐나다 특허청으로부터 물질특허와 방법특허를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1번 줄기세포는 황 박사팀이 만들었다고 발표했던 사람 배아줄기세포 가운데 유일하게 확인된 줄기세포다. 황 박사팀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인 충북대 현상환 교수는 "동시에 특허를 출원한 10개국 중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특허를 받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에 연루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28일 새벽 구속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두우 前 청와대 수석 구속수감

부산저축은행 억대수수 혐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7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기소)씨로부터 구명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대상 알선수재)로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구속수감했다.

김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수석은 대검 청사를 나서면서 '로비 청탁받은 혐의를 인정하는 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 댄 굴뚝에도 연기는 나네요"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이해 "김두우수 혐의를 인정하는 나"고 묻자 "(무죄를) 끝까지 밝혀줬다"고 했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청와대 고위 출신 인사가 구속된 것은 김 전 수석이 처음으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태규로부터 박모(54)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수천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건넸고 박 부원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김 전 수석도 동석했다는 진술을 확보, 박 부원장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철회하라"

지방분권 광주·전남본부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공항·항만 자유무역지역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전남본부는 성명에서 "수도권 의원들의 개정안 발의는 수도권 이기주의의 극대화인 사회적 갈등을 심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이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주요 책임인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 판단해야

함에도 제 역할을 포기한 채 지역이 가주의 관찰을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만 반영하는 소인배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와 일부 정치권이 비수도권 주민들의 처절한 요구를 묵살한 채 수정법 개정안을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정의와 역사를 거스르는 일"이라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바라는 전국 시민사회와 연대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각 당당이 당 차원의 구체적인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해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약속할 것도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

경매투자
공통 투자지 및 함께 공부 하실분
40% 미만 특수증권전문투자
주 1회 3개월 투자분석 및 개인지도
년 30% 수익을 법적보장!

50년 전통 · 대를 잇는 한의원
잇몸병 한약 2첩
붓고 시리고 애리고 피날때
북경당 한의원
대인시장 한미소풍 맞은편
한의학 박사 박 상 준
전화 227-7575
이이치 ~ 치료 치료

부실채권(못 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 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못 받은돈
- 선수금 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 수수료(회수 금액의 30% 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여) (아라바이트·시간제 가능·연령 무관)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광주·전남·전북 센터장 모집)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김정수)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임원(상임이사) 모집 공고(재공고)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임원(상임이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을 실시하오니 공기업에 관련된 전문적인 식견과 경영능력을 갖춘 인사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1년 09월 29일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상임이사 1명
2. 임용자의 임기 및 보수
3. 임용예정 직위 주요 직무내용
4. 응모자격
5. 지원서류 접수
6. 시험방법
7. 채용사유
8. 선발시험 방법 및 합격자 발표
9. 기타사항

공무원 특별자금
무상론 · 무담보 · 무보증 · 무포회기록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무보증/담보/무조회)
대출금리 : 1년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과다대출 : 연체(등금미납)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할도 할도래적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 선순위 - 연 5%~7.5%(은행금율)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포회기록
대출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대출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대출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대출기간 : 1년~10년 (퇴직기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사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한도 : KBS이세 - 80%+a (60%)
전세권 담보대출 금리 : 연 3.93%~
한도 : 보증금의 - 80%
전세권 담보대출 금리 :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용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